

금융권 과태료 · 과징금 2~3배 인상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에 과생결합증권 판매 할 경우 판매 전 과정 녹취 의무화

19일부터 금융권의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금액이 현행 대비 2~3배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과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등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난 8월 공포된 금융투자회사법 시행령을 포함해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는 약 2~3배 인상된다. 앞서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맞춰 법 시행령의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저축은행, 전자금융, 신탁)은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한다. 예를 들어 경영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주지금은 금융투자회사법 500만원, 자본시장법 1000만원, 보험업법은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6000만원으로 통일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뒤서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으로 '솔방망이 급전제재' 문제를 개선했다"며 "동일 위반 행위에 동일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해 법령간 제재 형평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

위의 중대성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B보험사가 C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법상 부과비율 인상(10%→30%) 및 기본부과율 폐지(부과기준을 도입)로 인해 과징금은 11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행에 비해 약 2~3배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있던 금융사 퇴직자 제재권한 중 일부가 금감원에게 위탁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과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추가연계증권(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과생결합증권 판매 증가에 따라 투자자 피해발생 우려가

증가,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 및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거래이 판매되고 있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금융투자업자는 70세 이상 고령자와 연령, 투자성향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 해당 투자자가 녹취대상으로 확인되면 이후 상품설명 등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과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5000만원) 등 제재를 부과한다.

단 이번 개정안들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달리 과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기준을 도입·시행을 위해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보험회사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등 하위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뉴스

기아차, 스텔러 멤버십 대상 '아이슬란드 투어' 모집

기아자동차가 스텔러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4박6일간의 아이슬란드 투어와 독일 기아차 유럽기술연구소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더 멤버십 스텔러 챌린지 버킷리스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4박6일 동안 오로라 헌팅 등 아이슬란드 핵심 지역을 여행하고 독일 기아차 유럽기술연구소를 견학하는 투어 프로그램으로, 참가 희망자는 10~17일 기아레드멤버십 또는 '더 멤버십 스텔러 챌린지 버킷리스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 당첨 여부는 오는 19일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기아차는 이벤트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10팀)을 선발, 다음달 17일~22일 아이슬란드 투어와 기아차 유럽기술연구소 견학을 실시한다.

초청된 고객들은 북극 반하늘에 펼쳐지는 빛의 향연인 오로라를 탐방하

고, 세계 5대 온천 중 하나인 블루라군에서 노천 온천 체험을 할 예정이다.

또 아이슬란드의 대표적 관광 코스인 굴포스 폭포, 게이시르 간헐천, 생벨리르 국립공원 등 아이슬란드 남부 지역을 둘러보는 골든 서클 투어를 즐기며, 아이슬란드 수도인 레이캬비크의 할그림스키르카 교회, 아이슬란드 국립 박물관 등의 시티 투어에도 참여하게 된다. /뉴스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

외국인 투자자 자금 회수 다시 이어진 것으로 추정

국내 채권금리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일제히 상승했다. 추석 연휴 직전 주춤했던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회수가 다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2bp(1bp=0.01%)포인트) 오른 1.930%를 기록했다.

채권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국고채 1년물 금리는 1.549%로 2.0bp, 5년물은 2.133%로 4.3bp, 10년물은 2.414%로 3.5bp 뛰었다.

다만 단기물인 CD와 CP 91일 물은 1.38%와 1.58%로 전 거래일과 같았다. 지난달 26일부터 사용간 외국인은 국내 채권시장에서 현물채권 3조709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26일 2조1509억 원이 빠졌고 27일에도 8525억 원 순매도했다.

28일 매도 규모는 585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휴 직전인 29일에는 순매수로 돌아서 3420억 원어치를 샀다. 유진투자증권 신용수 연구원은 "과거와 달리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높아지며 전반적으로 채권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금리의 상승 폭도 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미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에 따른 미 달러화의 강세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적극적인 국내채권 매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뉴스

이스타항공, 10주년 기념 특가 이벤트 진행

이스타항공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9일까지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0주년 기념 이벤트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선 ▲김포-제주 ▲청주-제주 ▲부산-제주 ▲군산-제주 등 4개 노선과 국제선 ▲인천-도쿄(나리타) ▲인천-오사카(간사이) ▲부산-오사카(간사이) 등 8개 노선에 대해 특가 운임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를 활용하면 총 12개 노

선에 대해 국내선 편도 최저 1만원(TAX 별도), 국제선 편도 최저 5만원(TAX 별도)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이벤트 기간 동안 예약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댓글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스타항공 특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번호와 이스타항공의 창립 기념일 퀴즈의 답을 댓글로 달아준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국제선 왕복항공권, 국내선 왕복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뉴스

아이폰 '배터리 불량' 골머리

스웰링 현상... 전 세계에서 불량 신고 늘어

부품 수급 문제로 아이폰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애플이 여전히 닥친 격으로 배터리 불량 문제까지 겹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직까지 폭발 사고는 없었지만 전 세계에서 불량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0일 중국 봉황광과 미국 포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 캐나다, 그리스, 대만 등 5개국

에서 판매된 아이폰8 시리즈에서 배터리 불량 중 하나인 스웰링(팽창) 현상이 보고됐다.

스웰링은 리튬-이온으로 구성된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이 가스로 변하면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오랫동안 사용된 제품에서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새 제품에서도 스웰링 문제가 일어난 것.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



해 "애플의 인면인식의 핵심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며 "적외선을 투사하는 부품 조립 시간이 이를 인식하는 부품에 비해 훨씬 더 길리면서 공급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웰링 신고 건수가 급증하지만 애플은 사체는 커지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은 분명 악재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

"모바일 페이 높은 수수료 조정해야"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결제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신용카드보다 높은 수수료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5대 페이시장 결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결제액은 총 10조1270억원이

었다. 간편결제는 공인인증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사전 인증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간단히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국내에서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같은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업체별 결제액은 오프라인 카드 결제 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삼성페이가 과반이 넘는 5조88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페이(2조1500억원), 카카오페이(6850억원), 페이코(1조3460억원), 페이나우(1100억원) 순이었다.

삼성페이는 카카오를 기반으로 하는 카카오페이가 압도적이었다.

카카오페이의 결제액 증가폭은 2015년 10억원에서 올해 8월 말 6850억원으로 무려 68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삼성페이는 3390억원에서 5조8860억원으로 약 17배, 네이버페이는 3170억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약 7배 늘어났다.

가입자 수는 네이버페이가 240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페이(1873만 7000명), 삼성페이(948만 7000명), 페이코(696만 9000명), 페이나우(460만명)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 수수료가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높다는 것이다.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1.3%인 데 비해 모바일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2.0~4.0%로 두 배가 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간편결제 업체들은 24시간 오류가 없도록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손쉽게 수수료가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편결제 업체들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